

바이바이 플라스틱!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주제로 진행된다.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일상에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

올해도 온누리교회는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실천에 앞장선다.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하 창조질서 회복캠페인)가 2월 14일(수)부터 3월 31일(일)까지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주제로 이어진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는 각자 일상에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한다.

이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에서는 개인과 가정, 일터에서 발생시킨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하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한다. 2월 14

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 동안은 '성찰하기' 기간이다. '내 일상의 플라스틱 사용량은?'을 주제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한다. 개인과 가정에서 발생시킨 플라스틱 쓰레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하면 된다.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실천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실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을 한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본 다음 그 기록을 사진으로 찍으면 된다.

4월 7일(일)까지 '성찰하기'와 '실천하기' 기간에 찍은 사진을 간단한 소감문(A4 한 장 이내)과 함께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제출하면 온누리교회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차세대를 대상으로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연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A4용지 한 장 크기로 그리면 된다. 차세대가 제출한 그림은 5월 5일 어린이주일에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게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피(血)로 나누는 생명과 사랑!

3월 31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이하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가 부활절(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전국 147개 교회와 55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들 42명이 참여했다(1월 31일 기준).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야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행사도 열린다. 2월 3~4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으로 헌혈버스가 찾아온다(양재 추후 일정 공지). 생명나눔의 기적 및 생명나눔의 날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2714-02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소개하고, 이재훈 위임목사의 저서 <방황의 시대, 방향이 되다>를 선물로 보내준다

2024 차세대 겨울사역

2024 온누리교회 차세대 겨울사역이 막 오른다. 파워웨이브 패션집회가 'Acts, Now'를 주제로 1차 2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2차 2월 18일(주일)부터 20일(화)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열린다. 1차 패션집회에는 서빙고, 수원, 부천, 대전, 세종캠퍼스, 2차 패션집회에는 양재, 도곡교육관, 인천, 영종, 강동, 평택, 남양주, 양지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참여한다.

꿈이자라는땅(꿈땅) 겨울캠프는 서빙고와 양재 초등부 2월 3일(토)~4일(일) '신나는 성경탐험(구약편)', 소년부 2월 17일(토)~18일(일) '성경 속 방하기', 도곡 2월 17일(토)~18일(일) 초등부와 꿈땅2부 연합 겨울캠프를 한다. 유년부는 2월 24일(토)~25일(일) '신나는 성경탐험(구약편)'을 주제로 진행한다. 나머지 캠퍼스도 일정에 따라 겨울캠프를 한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이주민을 위한 설 집회 'Grace together'

2월 2~16일 예배별 개최

온누리M미션에서 이주민을 위한 설 집회 'Grace together(함께하는 은혜)'를 개최한다. 2월 2일(금)부터 16일(금)까지 온누리M미션 예배별로 행사가 이어진다. 국가별, 언어별, 민족별로 모여 예배, 리트릿, 이웃리치 등을 한다.

이주민을 위한 설 집회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 명절선물 세트, 텀블러, 간식 등 물품 후원과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31-491-9650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지역	예배공동체	날짜
안산	태국	2월 12~14일
	필리핀	2월 10~11일
	미얀마	2월 11일
	네팔	2월 10~11일
	베트남	2월 10~13일
	몽골연합(안산, 김포, 서빙고, 평택)	2월 9~11일
	캄보디아	2월 10~11일
	스마트	2월 8~10일
	인도네시아	2월 10일
	러시아	2월 6~16일
김포	중국장년	2월 11일
	YER	2월 13~14일
남양주	캄보디아	2월 9일
	미얀마	2월 9일
서빙고	네팔	2월 10~12일
	인도	2월 10일
	캄보디아	2월 10~11일
	방글라데시	2월 10일
인천	경북대 사역	2월 10일
	네팔	2월 10일
	아랍	2월 11일
	러시아	2월 9~10일
평택	페르시아	-
	몽골 모자이크	2월 9~10일
화성	둔포차세대	2월 10일
	차세대	2월 2~3일
서산	네팔, 캄보디아	2월 10~11일
	이주민 가족 및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	2월 11일
군산	인도 및 한국어수업	2월 9~10일

CGN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

CGN에서 '콘텐츠 기획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넌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복음 콘텐츠', 'ALL ENG(외의 제작물), 인물 팔로우 형식(각 분야 업적을 남긴 신앙인의 삶)', '자유 주제'다. 크리스천이나 넌크리스천 모두 지원할 수 있다. 2월 25일까지 하단 QR코드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 또는 팀(4인 이내)으로 참가하면 된다. 대상 300만 원(1명), 최우수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2명)을 수상한다. 공모전 입상 기획안은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시사회 이후 기록 OTT '풍당'과 CGN 채널에 편성한다.

문의: 02-796-9800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14~4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온누리교회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한 역사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물이 이뤄지는 사건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이 함께 서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설명합니다. 열다섯 개 다른 지역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이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랍니다. 이 신기한 현상에 대해 경외감을 가지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조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120명을 “새 술에 취하였다”고 말하며 성령의 역사를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이 상황과 현상을 설명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17절). 베드로가 이 성령의 사건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고,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건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성령의 오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꿈을 갖고, 환상도 갖고, 비전도 갖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

둘째,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23~24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당신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시편〉에 예언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셋째,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설교를 마칩니다(36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신기한 사건은 예언의 성취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는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을 보입니다(37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쫓아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반응을 하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성령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능력, 내 경험, 내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명쾌하게 답변합니다(38절). 베드로의 대답은 “회개하라”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고백과 결단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 아내의 신앙, 자녀의 신앙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히 내가 회개하고, 내

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은사를 말하고, 열매를 말합니다.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

120명이 3천 명이 되고(41~42절), 〈사도행전〉 3장에서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웠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에도 전념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생명줄 같습니다. 또 기도는 전화선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무기고, 능력의 근원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빵을 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온누리교회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노치형 목사
(충주로공동체)

2024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 <예배와 예식> 편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 온 명절과 국경일 등은 교회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배의 계획과 설교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절기에 맞는 예배 자료를 성도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2) 추모예배는 죽은 자를 예배하는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예식이며, 죽은 자를 추억하며 슬퍼하는 추도예배와도 다릅니다. 사랑했던 가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억하며, 한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지켜 죽은 자를 경배하는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가족의 사진을 놓고 그리워하며 생전의 좋은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설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 뒤 겸소한 선물이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이처럼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다림의 익숙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다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순간의 기다림부터 오랜 기다림까지 기다림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전화를 기다립니다.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기다립니다. 자판기와 계산대 앞에서 기다립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이나 기차, 배나 비행기로 여딘가에 가기 위해 기다립니다.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상황을 따라, 마음 상태를 따라 순간처럼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영원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기다림은 순간과 영원을 이어주는 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대로 됨’의 과정 사이 성취의 기쁨을 향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창 1장). 하지만 뱀의 거짓에 미혹되어 행하게 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른 아담과 하와와 타락 이후부터는 다시 창조의 정결한 상태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사 5:4).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채워질 수 없는 탐심을 채우

고자 하는 죄악에 더러워져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용서의 은혜와 심판을 이기는 긍휼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제사를 드렸던 아인과 아벨 형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으며(창 4장),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던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방주에서 물이 줄어 땅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까마귀를 내보내 보기도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기다려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무지개 약속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창 6-9장, 시 40:1, 히 11장). 그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나가는 말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2024년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롬 8:23, 갈 5:5, 빌 3:20-21). 그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선포한 사도 바울의 외침을 실천하며 기다려야 합니다(딤후 4:1-2).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새304, 통404).....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이사야 30:18.....	가족 중에서
설교	기다림이 주는 복(福).....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다같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새301, 통460).....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기다림이 주는 복(福)

들어가는 말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약이 있건 없건, 짧은 길건 간에 ‘기다림’은 우리에게 너

무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조금 더 나아지리라는 기약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더는 기다릴 수 없어’라는 생각에 묶여 사랑하는 가족, 소우, 살아갈 소망, 인생의 목표와 승리의 성취 등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져 버리기도 합니다.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	시편 121:1~8.....	다같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새305, 통405).....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대표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히브리서 10:19~25.....	가족 중에서
설교	희생양이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	설교자
찬송	어지러운 세상 중에 (새340, 통366).....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희생양이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

들어가는 말

조그만 소년이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다가가 멈춰서더니 그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신사는 절망하고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함께 그림에 열중

하던 소년이 그 신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예요.” 그 신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소년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건 로마 군인들이고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신사가 “너는 어디에서 그것을 배웠니?”라고 물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요.”

그 신사가 고민 속에 미술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못 가 누군가 뒤에서 부르며 달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소년이 뛰어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뛰어왔어요.”

소년이 잊어버릴 뻔했던 그 말은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잊히지 않고 전해져 내려온 ‘생명이 죽음을 이긴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함께 죽음에 들어간 존재들입니다. 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고, 절망이며,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히 10:19).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으로 함께 죽음을 이긴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신사의 모습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쫓아내신 그 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히 10:22). 우리는 담대한 증거자 꼬마처럼 죽음을 이겨낸 생명의 승리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가는 말

혹시 우리는 이 승리의 이야기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사랑 선포를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롬 8:37-39).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가족 대화와 가정예배

좋은 대화를 위한 다섯 가지 기술



최은영 교수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몇 년 전 우리나라 초중고생 571명을 대상으로 한 어느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가족과 보내는 하루 평균 시간이 고작 13분이었다. 하루 공부하는 시간 190분, 미디어 이용 시간 84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족 대화가 사라지는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알아보자.

우선 대화를 가로막는 것들을 피해야 한다. 대화를 가로막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대화의 원전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라”고 말하고 싶다고 해보자. 그런데 자녀에게는 “세상이 다 그래. 공부 안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라고 대화의 주제를 숨기고 말하는 것이다.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빚대어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자녀들은 혼란을 느낀다. 대화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대화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전하고 싶은 속마음을 돌려서 말하는 경우다. 자녀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숨기고, “성실해야지. 부지런해야 한단 말이야. 삶에 바른 태도를 키우는 게 중요해”라고 말하

는 것이다. 이런 대화법이 좋은 대화를 가로막는다.

셋째, 대화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내 꿈을 찾는 일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때 “공부해야 꿈도 꿀 수 있는 거야”, “됐고, 공부나 해” 등의 답변을 하면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종종 한다.

넷째, 대화 상황이나 맥락을 부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내 꿈을 같이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어느 부모는 그 시간을 대화가 아니라 훈계나 조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좋은 대화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첫째, ‘경청’이 필요하다. 경청은 말 그대로 잘 들어주는 것이다.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와의 좋은 대화를 위해 시간을 내고, 마주 앉아 눈을 맞추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야 한다. 경청은 대화를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는 일이다.

둘째, ‘재진술’이 필요하다. 재진술이란 상대방에게 들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쉬운 것 같지만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다. 자녀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재진술은 “네 이야기는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돌려주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 답답하고 화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단번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해?”라며 혼내고 싶을지 모른다. 재진술은 올라오는 감정을 정리하고,

자녀의 마음을 한 번 더 읽어주고 말해주는 것이다.

셋째, ‘공감’이 필요하다. 자녀의 말에 담겨 있을 만한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부모가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네 마음이 아프겠구나”, “절망스럽고 화가 나겠구나”라며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넷째, ‘전달’이 필요하다. 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이 있을 것이다. 좋은 대화를 위해서는 부모의 마음과 이유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 “실은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아빠가 너의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너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나 보구나.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나는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부모의 감정도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요청’이 필요하다. 좋은 대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는 요청하는 것이다. 요청과 요구를 통해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서로 요청하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까지 실행하면 정말 좋은 대화다.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서로의 가치와 신념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나눠야 한다. 가족 안에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우고,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 고품격 가족 대화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11편 가족 대화-가족 예배’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2월 1~2일
본문 <마가복음> 11장 7~10절, 15~18절



1.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타셨던 동물이 무엇인가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치며 환영했나요? 올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보세요.

- ① 말, 할렐루야
- ② 나귀, 할렐루야
- ③ 말, 호산나
- ④ 나귀, 호산나

2.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이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꾸짖으셨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 이곳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혼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인 이곳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 ① 장터
- ② 성전
- ③ 학교
- ④ 식당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독후감 대회’ 수상작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나는 매주 한 번씩 교회 도서관에 가서 성경에 관한 많은 책을 읽었다. 어느 날 <슈퍼 바이블>이라는 책을 발견했다. 역시 만화라 그런지 재미있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다음날부터 하늘과 바다, 땅과 우주를 만드셨으며,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 이후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도 쉬시는 것이 중요하셨나 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공룡과 곤충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슈퍼 바이블>을 읽고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

신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솔직히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았다. 그런데 <슈퍼 바이블>은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었고, 성경 어느 구절인지도 나와 있어서 알기 쉬웠다.

나는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작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을까? 처음부터 여러 명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날 때 왜 보고만 계셨을까? 아직도 궁금한 게 정말 많다. 이 궁금한 점들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결심

했다. 엄마 아빠가 말씀하시길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궁금한 점에 대해 답을 해주시기도 한다”고 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많았다. 이제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응답을 해주시겠지?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황도훈 학생
(서빙고 초등학교 2학년, 사랑상)

로잔 운동의 성격과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전망

서울 제4차 로잔대회에 바라는 점 (1)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송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명예교수)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는 9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열린다.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다. 22개국에서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NGO, 예술가, 법률가, 교육자, 환경운동가 등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세계복음주의의 두 기동인 ‘로잔운동’과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2010년 케이프타운 제3차 로잔대회까지 공동주최해 왔다. 서울 제4차 로잔대회에서는 WEA 총무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공동주최는 아니다. 한국로잔위원회와 세계로잔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WCC부산대회가 교회사회적 흔적을 남긴 것처럼,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교회사에 남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여러 기독교 단체가 건설적으로 토의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한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 15:22).

필자는 조직신학자 입장에서 다가오는 9월 열리는 서울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전망과 바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로잔 언약의 창립 정신 계승

서울 제4차 로잔대회는 40년 전인 1974년 세워진 로잔 언약의 창립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이번 로잔대회가 복음 전도(evangelism)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로잔운동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 로잔 언약의 창립 정신인 ‘총체적 선교’에 관한 것은 제1차 로잔대회 결의문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 강조되었다.

미국 남침례교단의 루마니아 선교사였으며, 남침례교 국내 선교 기관인 북미선교위원회(The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연구지원 개발 부서의 부책임자로 사역하는 ‘트레빈 왁스(Trevin Wax)’는 존 스톱트의 자서전 〈거룩한 열망〉(Godly Ambition)을 인용해 로잔 언약에 담긴 ‘사회적 책임’ 문구를 두고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톱트 사이에 긴장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음을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

“제1차 로잔대회 이후 스톱트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이 로잔 언약이 표방한 선교의 양면, 즉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을 보았다. 1975년 1월 후속대회로 모인 멕시코대회 첫날 스톱트가 참석한 자리에서 빌리 그레함은 ‘우리는 복음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제 강연을 했는데, 스톱트는 빌리 그레함의 강연을 생각하며 그날 밤

첫째, 복음전도, 사회적 책임 균형, 로잔운동 유산 계승
둘째, 개종 유예 벗어나 자유로운 복음 전파와 전도
셋째, 복음 전파 우선된 사회적 책임
넷째, 성경적 세계관 연구 및 제공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미전도종족 선교 연구 및 사례 보고, 발전적 제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스톱트는 로잔위원회 앞에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는 로잔 언약이 앞으로 로잔운동에 반영되지 않으면 자신은 위원직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그레함 역시 오랜 친구 스톱트를 잃지 않기 위해 그해 4월 스톱트에게 존경과 사랑이 담긴 편지를 보냄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되었다. 로잔언약에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단 한 차례 언급되었지만, 마닐라 선언문과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사회적 책임은 여러 번 반복 되었다.”

빌리 그레함은 존 스톱트가 작성한 로잔 언약이 지닌 ‘넓은 의미’의 선교 개념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스톱트의 목회와 신학적 자질, 삶으로 보여준 투명한 모습을 보고 찬성하였다.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자들(김성욱, 장훈태, 김승호, 김은수, 안승호)은 로잔운동이 총체적 선교를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의 본래적 사명을 망각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신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더라도 복음 전도 우위성(The Primacy of Evangelism)을 결단코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적 선교 본질에 충실

로잔운동은 〈신구약〉성경에 기초한 선교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한다. 〈신구약〉성경이 말하는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야말로 기독교 선교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만 전하신 게 아니라 당시 의료시설이 전무한 시대에 병자들을 고쳤다. 이것은 당시 할 수 있는 복음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저들의 상담자가 되시고, 저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

1974년 나온 로잔언약은 WCC의 개종 유예(猶豫, moratorium of proselytism)에 대한 복음주의적 반응에서 나왔다. WCC 신학은 1960년 이미 종교 대화(religious dialogue)를 통한 종교다원주의 및 종교혼합주의 인류 연합운동으로 발전하면서 1973년 방콕선교대회에서 최초로 선교 유예(Mission Moratorium)를 선언하였다. 선교 유예란 반선교정책으로 종교간의 개종을 금지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종

교다원주의의 종교 대화에서 전제되는 것이다. 로잔운동은 개종 유예 슬로건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종 유예의 상황에서 자유로운 복음 전파와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 개종 강요나 유예(금지)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기 종교를 지키거나 바꾸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복음주의 선교 추진

오늘날 인본주의적 선교로부터 복음주의 선교로 기독교 선교를 본 궤도에 올려야 한다. 오늘날 복지제도가 잘 발달 되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보편화하고 있다. 서구에서 들어온 이 복지제도도 기독교 선교의 사회적 책임에서 나온 것이다. 기독교 선교는 단지 구제나 복지제도에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 영혼의 복지에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그것은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의 우선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로잔 언약 7항; 마닐라 선언문 2부 4항; 케이프타운 서약 2부 8항). 그레아만 사회적 책임도 열매를 맺는다.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독교 선교가 인본주의 선교에 빠진다는 우려는 제도적 선교에만 치중하고, 그 복지의 정신이 되는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동력이 되는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전하는 데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 제공

로잔운동은 선교사의 일터인 세계, 말하자면 세계의 모든 것과 세계 모든 민족과 문화, 세계관에 대해 알아야 한다. 21세기 그리스도인과 선교사는 다양한 세계관의 흐름에 직면해 기독교 복음의 타월성을 변증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로잔운동은 유신진화론(theistic evolutionism)이 신다윈주의(neo-darwinism)와 결합해 지구촌의 기독교와 지식인을 공격하는 인본주의적 과학기술주의 시대에 구속사적이며, 종말론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견지해야 한다. 후기 현대의 혼미스러운 세계관을 바르게 관찰하고 연구하는 구체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미전도종족 선교 심층적 논의

마닐라 제2차 로잔대회에서 시작된 새로운 선교 운동 ‘AD 2000운동(AD 2000 and Beyond Movement)’은 1,500여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들을 2000년 말까지 전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자는 세계복음화에 초점을 두는 운동이었다. 1992년부터 미전도종족을 연구하는 ‘Joshua Project’가 시작되어 그들이 집중된 ‘10/40 Window’ 지역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세계복음화에 새로운 동력을 일으키며, 미전도종족 입양 사역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2001년에 이르러 국제로잔위원회가 재정 지원 및 사회적 책임 사역 때문에 지속 사역을 거부함으로써, 전방 선교의 우선적 고려를 강조한 루이스 부스와 토마스 왕 등 AD 2000운동 지도자들이 로잔운동에서 탈퇴했다. 이후 독자적인 본부를 구성해 ‘타문화 선교(the cross-cultural mission)’를 하고 있다. 마닐라 제2차 로잔대회는 미전도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데 7%의 선교사가 종사하고, 다른 93% 선교사가 복음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으므로 선교사 재배치를 요청하였다(2010년 마닐라 선언문 2부 11항).

2010년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미전도종족 선교 이슈는 더욱 구체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그들에 대한 무관심과 복음 전도를 게을리한 것에 대한 회개 및 미전도종족 전도에 대한 재헌신을 결의했다(케이프타운 서약 2부 4항).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미전도종족 가운데서 선교에서 소외된 종족들을 따로 분류했다는 것과 성경 번역에 대한 강조와 구두적 메시지 전달 방식, 평신도 지도자 양성 등과 같은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마닐라 선언 이후 로잔이 추구한 복음 전도 우선의 강조점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위한 역할적 제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 사역은 〈마태복음〉24장 14절에 근거한 세계 복음화 완성을 위해 필요하나 아직도 남아 있는 미완의 과제다. 미전도종족 선교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천은 제1차 로잔대회가 선언한 일차적인 지상적 과제인 세계 복음화를 실천하는 과제로서 21세기 기독교 선교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번 서울 제4차 로잔대회에서 복음 전파(Reaching People) 세션에 다음 여섯 가지 이슈 그룹이 있다. 1. 전 세계 인구 고령화(The Global Aging Population), 2. 새로운 중산층(The New Middle Class), 3. 다음세대 전도(Reaching the Next Generation), 4. 이슬람(Islam), 5. 세속주의(Secularism), 6. 최소 전도종족(Least reached people)이다. 여섯 번째 최소 전도종족 이슈 다음에 미전도종족 이슈가 빠져 있다. 제4차 로잔대회에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와 사례보고, 발전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제4차 로잔대회를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등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아라!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작은바울 꿈꾸는 황진기 순장의 전도 열정

〈온누리신문〉에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을 찾아 나섰다.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이주민을 돌보는 등 일상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황진기 순장(강남E공동체)이다. 그는 작은 바울을 꿈꾸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황진기 순장’ 부부.
◀ 황진기 순장이 고속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이 있길래 저렇게 싱글벙글하지?’

인터뷰 내내 미소를 보이는 황진기 순장(강남E공동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다. 지난 1월 28일(일) 황진기 순장을 도곡교육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시종일관 행복한 미소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자도 덩달아 행복해졌다. 웃음이 계속 나왔다. 해피 바이러스가 전염된 게 분명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 행복의 비밀이 뭐냐고 말이다.

“전도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택시아말로 전도의 황금어장

황진기 순장은 요즘 ‘택시 전도’에 푹 빠져 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택시 전도를 이어오고 있다.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에게 복음을 전한다. 황진기 순장이 택시 전도에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 모른다. 전도하려고 일부러 택시를 탈 정도다. 주말에 교회갈 때는 꼭 택시를 탄다. 교회 가는 내내 복음을 전하고, 내리면서 교회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황진기 순장이 택시 전도를 시작한 이유가 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기사와 대화를 나눴다. 황진기 순장이 기사에게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기사가 “다니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황진기 순장은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전도폭발훈련’에서 배우고 익힌 전도 방법을 활용해서 전도했다. 그날 그 택시 기사가 예수를 만났다. 입술을 열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사실 전도하면서도 ‘이게 될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 다. 주어진 시간이 짧는데 복음의 내용을 모두 전할 수 있을지, 제 이야기가 운전에 방해되지는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 성령님이 그 기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더 많은 씨앗을 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황진기 순장은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에게 “교회 다니십니까?”라고 질문한다. 몇 달째 택시 전도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택시 기사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황진기 순장이 몇 달 동안 만난 수십 명의 택시 기사 중에서 단 한 사람 빼고 모두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 없거나 교회를 떠난 이들이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택시아말로 전도의 황금어장이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외부적 요인에 방해받을 일이 없어서 일대일로 전도하는 최적의 환경임이 분명했다. 그래서 황진기 순장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택시 전도를 권한다.

“택시 전도 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더 많은 성도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어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성도님들께 택시 전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택시 안에서 보내는 10~20분 사이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황진기 순장이 택시 전도만 하는 게 아니다. 전도를 빼놓고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행사 기획사를 운영하는 황진기 순장은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난다. 그때마다 그는 전도를 쉬지

않는다. 어느 날은 공연 무대를 세팅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전도하려고 무작정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또 어느 날은 미팅을 마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의뢰인에게 ‘이번 행사를 위해 잠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고 회사와 행사를 위해 기도했다. 주말에는 고속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얼마 전에는 교회 앞 카페에서 일하는 청년을 전도했다.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황진기 순장의 타고르는 전도 열정을 보면 바울이 떠오른다. 예수 전하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마음이 황진기 순장에게 심겨 있는 것 같다.

“제가 바울과 같다니요? 과찬이십니다. 그러나 ‘작은바울’이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본받아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기를 바라며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황진기 순장에게 전도 열정을 심어준 이는 아내 이미현 순모(강남E공동체)다. 이미현 순모가 몇 년 전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에 대한 사명이 생겼다. 전도가 왜 중요하고, 왜 전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은 그녀는 온종일 전도문을 읊어주는 영상을 틀어놔다. 황진기 순장이 전도문을 달달 외울 정도였다.

“아내가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오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훈련은 꼭 들어야 해!’ 하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아내가 매일 틀어놓은 영상 덕분에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전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럴 거면 내가 훈련받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황진기 순장은 대학 시절 CCC(Campus Cru-

sade for Christ,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순장으로 섬길 정도로 전도를 많이 해왔지만, 전도폭발훈련은 신세계였다. 전도폭발훈련은 복음 전하기 위한 담대한 마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줬다.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 황진기 순장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전도폭발훈련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도 전도가 쉽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 거는 게 어색했고, 거절당할까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 망설인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폭발훈련을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려면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전도를 더 배우고 훈련받고 싶은 성도님들은 반드시 전도폭발훈련에 참여하십시오.”

황진기 순장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저는 이 표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전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동료, 차 한 잔 마시러 들린 카페 직원, 사랑하는 가족 등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전도해 본 사람만 아는 행복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그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찾습니다!
대상: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제보 및 문의: 메일(hha0@onnuri.org)
전화(02-6959-0001)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가 꼭 바로 알고, 가르쳐야 할 네 가지!”

일대일제자양육의 중요한 내용과 보완할 점



강영재 장로
(양천공동체)

지금 온누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는 두란노서원에서 출간한 <일대일제자양육 성경공부>다. 이 책은 미국에서 Multiplication Ministries를 운영하는 Al and Broom에 의해 1983년 출간된 <One to One Discippling>이라는 책 내용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 1~4과를 추가해 만들어졌다. 과거 오랫동안 일대일제자양육을 해 온 많은 사역자에 의해 교재 개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었고, 실제 개정 작업도 추진된 바 있다. 주로 16주가 아닌 단기 아웃리치에서 양육하도록 편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도서의 저작권 문제와 기존 양육자 재교육 문제 등이 얽혀 교재 개정이 실현되지는 못했다. 양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대일 제자양육 지침서>와 <일대일 나눔 핸드북> 등 보조 자료 개발에 머물렀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오랫동안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을 하고, 실제 양육을 진행하며 아쉬웠던 점, 교재와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내용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하고자 한다.

예수는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의 왕족이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보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라는 질문을 ‘첫 번째 만남’에서 던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예수가 참사람임을 강조하는 이 질문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의 왕족임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다.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요(마 1:1~6), 어머니 마리아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눅 3:23~38) 유대 왕족 간의 결혼이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라 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로 나와 있다. 이는 헬리는 요셉의 장인, 즉 마리아의 아버지로 당시에는 사위도 아들로 칭했기 때문에 족보에 딸 대신 사위 이름이 적힌 것이다. 즉,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몰락한 왕족이지만, 유대인의 왕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유대인 왕께(마 2:1~2) 경배하러 왔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1~2).

예수님도 빌라도의 질문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마 27:11). 로마 군인들에 의해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질 때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다(마 27:29, 37).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마 27:11).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 어다 하며”(마 27:29).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마 27:37).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메시아가 유다 족속으로(창 49:10), 이새의 가계에서(사 11:1~5), 다윗의 후손으로(렘 23:5) 올 거라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이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들이 교재와 지침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알고, 가르치길 바란다.”

예수를 본 사람이나 영적 존재들의 증언

일대일제자양육 교재에 ‘결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도 있다. ‘첫 번째 만남 7번’에 나온다. 예수가 참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이 질문에서 제자들과 로마 백부장, 지키는 자들, 의심 많은 도마의 말을 인용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 아니라 영적으로 더 민감했던 사람이나 사단, 귀신들의 반응이 포함되어있으면 예수가 누구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동방박사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 했고(마 2:2), 헤롯은 예수를 자신의 왕권에 위협되는 존재로 인식했다(마 2:16). 사단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고(마 4:3, 6), 귀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마 8:29)’, ‘하나님의 거룩한 자(막 1:24)’라 칭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 2:2).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마 2:16).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

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 4:6a).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마 8:29).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막 1:24).

예수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일대일제자양육 교재에서 ‘두 번째 만남’을 보면,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온다. 예수의 사역을 소개하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일인 창조가 빠져 있다. 교재의 흐름

틈상 처음에 넣기가 부적절하면, 예수의 죽음 뒤에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요 1:1~3)를 소개하면 좋을 듯 하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 1:1~3).

실제로 필자의 동반자 중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출산으로 태어나셨고, <신약> 성경에만 언급되어서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 그분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그의 신앙에 큰 진전을 보았다. 돌이켜 보니 필자도 수십 년 동안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며, 2천여 년 전에 오신 신약시대의 예수님만 알고 지냈던 게 사실이다. 예수가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정확히 소개해야 한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던 말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요 8:57~58).

예수는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시고, 다스리신다

지금의 일대일제자양육 교재에는 예수의 과거 하신 일과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장차 하실 일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구원의 확신’ 차례에 나오는 ‘(3)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와 ‘(4)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라는 질문 사이에 ‘예수님은 장차 무슨 일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는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마 24:30)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다(계 20:7~10).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마 25:31~33), 심판하신다(마 25:46, 계 20:12). 그리고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계 21:1, 계 22:5).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7~1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리라”(마 25:31~33).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46).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계 20:12).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계 22:5).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일대일제자양육 교재와 일대일제자양육 지침서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들이 꼭 바로 알고, 가르쳐야 할 내용이다. 교재의 여백에 표시해 두고 양육할 때 보완했으면 좋겠다.

맛있는 말씀 해설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잠 16:3)

성경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일상의 계획이 잘 안되는 이유가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잠언〉 16장 3절에서 동사 ‘맡긴다’의 뜻과 ‘이루어지다’의 의미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맡기다’의 ‘갈탈(히)’은 문자적으로 ‘굴리다’, ‘옮기다’, ‘뒹굴다’는 의미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주는 ‘주권 이양’과 같다. ‘이루어지다’의 ‘이코누(히)’의 의미는 결과로써 ‘세워진다’, ‘확립되다’, ‘건고하다’는 신적 수동태를 나타낸다.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은 일반은총(노력)과 특별한은총(은혜)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나타낸다. 그것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잠언〉 16장 전체의 대전제이다(1절).

돌을 한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굴리는 것처럼, 나의 인간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이 의미에서 믿음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의미로써 ‘겸손’하라는 것이고(18~19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며(20절),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라(16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경건생활을 하면서 내면의 동기를 살피게 된다.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의 삶을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다(9절).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사고, 경영 가운데 깊이 간섭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라는 온전한 의미이다.

사람의 경영과 행사가 자신의 노력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신적 수동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신적 수동태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나타내는 용어다. 하나님이 그분을 의지하는 자

를 잘못 인도하지 않으실 것이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선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텔레마(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와 ‘볼레마(하나님의 변하는 계획)’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절대적인 뜻이 변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절대적인 뜻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계획은 바뀔 수도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최선(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은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비록 드러나는 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에서 전화위복과 인생 역전의 예들이 정말 많다. 나쁜 상황에 몰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보내져야 했을 때 그의 부모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출 2:1~10절).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심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

았다(창 22:1~14).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다시 아들을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 예수님의 겐세마네기도(마 26:36~46)와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행 16:27~40)도 다르지 않았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네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는 나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자주 상기해야 한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 행위까지 알고 계시는 창조주이시고, 인격적인 분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시 139:1~4).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월 5~11일

〈마가복음〉 12:13~14:11

목상포인트 1:

모든 계명 중에 으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난다. 이 두 계명에 비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자.



▶세금에 관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의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자식 없이 죽은 일곱 형제와 한 아내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지적하시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답변하신다. 모든 계명 중에 으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서기관에게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사편〉을 인용해 그리스도(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을 넘어 하나님 아들임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위선과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것

을 보고는 그가 가난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칭찬하신다.

목상포인트 2: 성경은 이 세상 역사에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명시한다. 그날은 성도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장차 있을 환난과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묵상하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다. 전쟁과 지진, 기근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면 마지막 때가 온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미혹시키겠지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셔서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면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에 성도는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

목상포인트 3: 헌신은 자신의 귀한 것을 남김없이 드리는 결단이다. 한 여인은 자신의 전부와 같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는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한다.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향한 참된 섬김과 헌신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 어떤 사람들이 여자가 향유를 허비했다고 비난하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행동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며, 그의 행동이 복음과 함께 기억되리라고 말씀하신다. 가롯 유다는 돈을 받기로 하고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운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이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2024년 한 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적용해 보자. ▶서기관들과 같은 위선적 삶에는 두려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어디서나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기로 다짐하자. ▶과부의 두 렵돈에 담긴 가치를 깊이 묵상하고, 나의 헌금 생활을 돌아보자.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 더욱 힘쓰자. ▶예수님을 위해 깨뜨릴 나의 향유 욕망이 무엇인가? 귀하신 예수님께 시간과 물질, 재능 등을 힘을 다해 드리며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보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앗살 자매님을 위해서!

펍택M센터 앗살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그들은 난민 가정으로 펍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레자 형제의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계속 큰 무지를 옮기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앗살 자매님도 남편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의 고단함 때문인지 건강이 좋지 않고, 막내딸의 잔병치레를 많이 겪었습니다.

사춘기로 접어든 첫째 딸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가정을 바라보면 가정 안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마음이 듭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데, 아픈 막내딸이 병원에 자주 다녀 염려됩니다. 앗살 자매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난민 가정이 한국에서 지낼 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기를,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첫째 딸이 바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막내딸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앗살 자매님 가정이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전홍렬 선교사(펍택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Q & A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있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 청년들이 배우자를 만날 때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의 소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대 근동에서는 배우자를 정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적하게 만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믿음직한 종을 보내서 신부감을 구한다.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먼저 기도했다. 종을 보낼 때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네 앞에 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권면했다. “...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창 24:12-14a).

리브기는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아니라 낙타

에게도 물을 줬다.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고, 믿음의 후계를 이어갈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다.

아이와 함께 ‘장래 배우자를 기도로 준비하자’고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좋은 가문의 사돈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기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을 아이와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다. 아이는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먼저 좋은 사돈이 될 준비를 하고, 우리 집이 좋은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로 기도 내용을 바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아이가 먼저 좋은 배우자로 준비되고, 부모인 나도 좋은 사돈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연약의 짝인가? 많은 사람 중에 결국 한 사람, 평생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어떻게 알 수 있

는가? 남편과 교제를 막 시작하던 때의 일이다. 남편이 나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나눠주었다. 나와 결혼하고 싶은데 전역하고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 돌아가셔서 가산이 기울었으며, 어머니는 중풍으로 어려운 처지임을 이야기했다. 지금 가진 것은 직장에 들어가면서 저축해 둔 돈뿐이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결혼하고, 방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 마음이 편안했다. 진심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거침없이 말할 정도로 당당한 사람이라는 것도 느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만약 누군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문제가 되어 돌아선다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기보다 더 여유가 있는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에 서로 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형성은 좋은 조건의 사람끼리만 만나는 게 아니다. 외부적 조건이 미약해도 그 어려움으로 내적 근력이 형성되

고, 다른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서로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보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연약의 짝은 상대의 연약한 부분을 보았을 때 그것을 채워주고 싶고, 보듬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예를 들어 자매가 ‘나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고백했을 때 짝이 아닌 사람은 부모의 사랑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남편으로 그 사랑까지 채워주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된 연약의 관계일 것이다. 자기중심의 배우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배우자로 설 수 있는 기도가 축복이다.



강미향 목사
(가정사역공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사랑의 의미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가 외판곳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음씨 착한 노부부의 집을 지나게 됐다. 노부부는 그 고양이가 버려져 정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알아챘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고양이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고양이가 노부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 방황하며 살던 들고양이였는데 이제는 함께 할 주인과 집이 있는 집고양이가 됐다.

시간이 흘러 고양이가 자신에게 베풀어 준 호의에 보답하고자 했다. 고양이는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사냥을 잘한다. 집주변에서 서식하는 뱀과 쥐들을 혼내주고, 의기양양하게 물어온다. 목적은 오직 하나다. 노부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밤새 사냥한 뱀과 쥐를 할머니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주방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놓았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냥 능력으로 노부부를 조금이나마 행복하게 해 주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숨죽여 기다렸다.

그런데 기대한 모습과 정반대로 할머니가 주방에 놓인 죽은 뱀과 쥐를 보면서 기겁했다. 할머니가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쳤다. “아니 왜 이런 것을 가져다 뒀어!”, “다시는 이렇게 하지마”라고 호통쳤다. 고양이는 이렇게 하지마”라고 호통쳤다. 고양이는 할머니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몹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보답하고 싶었을 뿐인데 자신이 했던 감사의 행동이 할머니가 기겁할 행동이 됐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다.

분명 시작은 좋은 마음이었는데, 그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라면 그 행동을 수정해야 한다. 사랑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에 맞춰서 행동하고, 섬기는 게 사랑이다. 부부는 서로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연합된 관계다. 늘 사랑하면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게 부부의 모습이어야 한다. 여기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사랑은 정말 다양하게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해하는 관점도 다를 수 있다. 사랑을 느끼는 접촉점도 다양하다. 선물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봉사를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강렬하게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사랑의 또 다른 의미를 추가하고자 한다. ‘부부의 사랑은 서로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고, 서로가 기대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고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하고자 한다.

배우자가 불편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사랑이 아니다. 좋은 마음에서 배우자에게 제안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면 멈춰야 한다. “왜 싫어해?”, “당신은 나의 호의를 왜 항상 무시해?”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강요한다면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배우자가 있다. 내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혼자 있거나 소수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런데 반대 성향을 가진 배우자가 계속해서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다면 힘든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싫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경험한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 그것을 사랑과 관심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느끼는 게 다르고, 필요가 다를 수 있다. 부부는 닮아가는 면도 있지만, 닮지 않은 독특함도 있다. 자신의 입장만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배우자의 말을 유심히 듣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사랑이다.

사위하지 않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배우자에게 청결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식탁에서 서로에게 민감한 자녀 교육 이야기, 양가 가정에 관

한 불편한 이야기 등 심각한 대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면 그 대화는 식사 이후로 미룰 수 있는 인내와 결단도 필요하다. 그 외에도 많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 앞에서 반말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능력이나 외모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등 다양하다.

자신에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도 배우자에게는 싫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한편 자신은 정말 하기 싫은 것이라도 배우자가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행동에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관계가 불편한 부모님께 전화 한번 드리는 게 어떠한가 배우자의 말을 듣고 힘들지만 실행해 보는 게 사랑의 행동이다. 심각하게 갈등이 생긴 청년기 자녀에게 “힘들지?”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라는 배우자의 제안을 실천해 보는 것도 표현되는 사랑의 행동이다.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싫어하는 것은 멈출 수 있는 부부가 되어서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황국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정동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스크랜튼'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서울 정동은 서구(西歐)적 분위기가 듬뿍 담긴 견고한 동네다. 구한말에도 그랬고, 지금도 서구적 분위기가 넘실거린다. 덕수궁 돌담을 따라 걷다 보면 지금도 공사관 직원들과 선교사들이 분주히 왕래할 것 같다. 정동은 덕수궁을 중심으로 확장한다. 조선 초부터 대한제국 시기까지 파란만장한 역사가 누적된 곳이다. 한국기독교 초기 역사도 정동에서 시작되었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윌리엄 스크랜튼 선교사도 정동에 있었다. 그는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그곳을 나와 정동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조선에 온 이유는 민중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스크랜튼은 미국공사관 건너편(지금의 정동교회)에 한옥을 마련하고, 병원으로 개조했다. 개인적인 진료를 보다가 미국에서 의료 장비가 들어온 1886년 6월에서야 공식적으로 병원문을 열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환자가 찾아오지 않았다. 정동이 라는 특수구역에다가 서양인 의사에게 몸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크랜튼은 환자를 직접 찾아 나섰다. 그가 보낸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날 오후 도성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나는 버려진 한 엄마와 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구걸하여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과 딸을 이곳에 두고 시골 자기 집으로 간 지 3주가 지났다고 합니다. 다가가서 여인의 몸을 살펴보려다가 실패했는데, 여인이 나를 보자 무서워하며 정신상태가 극도로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기온이 내려가기에 집꾼들을 불러 여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집꾼들도 처음 보는 여인이라 하며 내가 주는 수고비를 마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엾은 사람을 도와주려는 내게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려진 이 여인은 당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앓던 ‘회귀열’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무서운 질병 중 하나였다. 그러나 스크랜튼이 여인을 치료해서 3주 만에 회복시켰다. 그 일이 집꾼들에 의해 소문이 났다. 불쌍한 여인을 도와준 스크랜튼의 ‘착한 일’과 질병을 치료했다는 ‘용한 의사’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다음부터 스크랜튼의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가 늘어났다. 그때 치료받은 여인은 ‘패티’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선교사 집의 일을 도왔다. 패티 옆

에 있던 4살 별단이는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어 보구여관(保救女館: 여성병원)에서 일했다.

환자들이 물밀듯 들어왔다. 처음 1년은 1,937명, 다음 해에는 4,930명에 이르렀다. 돈 없고 가난한 이들이 몰려들었다. 스크랜튼의 병원은 약을 나눠주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시약소(施藥所)’로 불렸다. 1887년 나라에서 스크랜튼의 병원에 ‘시병원(施病院)’이라는 이름을 내려주었다.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처럼 나라에서 인정한 병원이 됐다.

스크랜튼은 병원을 옮기기로 했다. 정동은 덕수궁, 경희궁, 공사관과 영사관, 외국인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었다. 생활하기에는 조선의 어느 곳보다 안정적인 곳이지만, 조선 민중들이 눈치 보며 찾아와야 하는 곳이었다. 전염병 환자의 경우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하던 곳이었다. 당시 전염병에 걸린 이들은 성벽 밖에 버려져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였다. 그래서 스크랜튼이 조선 민중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1892년부터 병원을 옮기는 일을 추진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시작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신체적 생명을 건지는 일이 곧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는 게 자신을 조선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했다. 스크랜튼의 간절한 기도와 후원 요청에

미국 선교본부가 응답했다. 1888년 12월 애오개 시약소, 1890년 10월 남대문 시약소, 1892년 동대문 시약소를 열었다. 시약소에는 의약품만이 아니라 성경과 전도 책자를 비치해 두었다. 전도인을 상주시켜 이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1895년에는 정동 시병원에 있던 모든 장비를 남대문 상동으로 옮겨 진료를 시작했다. 병원부지 안에 있던 한옥 한 채를 예배실로 만들고 주일집회를 시작했다. 시작 첫해 이미 1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다음 해는 300명으로 늘었다.

스크랜튼은 안주하지 않았다. 정동을 스스로 걸어 나왔다. 정동사역은 대단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불쌍한 민중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 ‘민중 속으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민중 속에서 열었던 애오개 시약소는 ‘아현교회’, 남대문 시약소는 ‘상동교회’, 동대문 시약소는 ‘동대문교회’가 되었다.

스크랜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 민중을 위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조선의 민중을 사랑했던 스크랜튼의 삶을 묵상하자.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안전과 성공, 유익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로 다짐하자.

두란노 신간

선교는 동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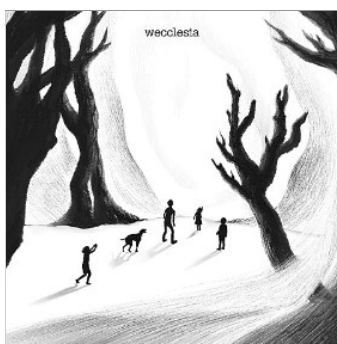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임용우 저 | 두란노 | 17,000원

“선교는 후원이 아니라 동역입니다.” 책 <우리는 동역자입니다>는 저자가 평신도 사역자에서 위싱턴성광교회 담임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야기와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역자로 성공적인 삶을 누리다가 예수님 만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저자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품고 선교에 참여했다. 위싱턴성광교회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다. 세계 곳곳의 선교사와 연결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선교’라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운 간증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동역할지를 알게 되고, 사역의 방향을 찾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뜨겁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성도, <사도행전> 교회의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분명 환한 아침이 온다!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
위클리시아 곡

이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

찬양 ‘어두운 밤 물리쳐내고’는 아침처럼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고백한다. 이 찬양의 마지막은 새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을’의 후렴구와 이어진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라는 가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일을 소망한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삶의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이 찬양은 QR 코드,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바이바이 플라스틱!

하루라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책상만 보더라도 플라스틱이 넘쳐난다. 마우스, 키보드, 노트북, 텀블러, 무선 충전기, 무선 이어폰, 클리어 파일 등 셀 수 없이 많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16년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가 대한민국(98.2kg)이었다. 2위 미국(97.7kg), 3위 프랑스(73kg), 4위 일본(66.9kg), 5위 뉴질랜드(63kg)였다. 2017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그 사용량을 조사했다. 비닐봉지 235억 개(469,200t), 페트병 49억 개(71,400t), 플라스틱 컵 33억 개(45,900t)였다. 1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한민국 국민 한명당 연평균 비닐봉지 460개(9.2kg), 페트병 96개(1.4kg), 플라스틱 컵 65개(0.9kg)를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비가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제 플라스틱과 작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고민하고, 장바구니 사용하기, 텀블러 사용하기, 분리수거하기 등을 실천하자.

CGN, '바울로부터' 제작 발표 및 시사회

2월 15일 기독 OTT '풍당', 유튜브, TV 공개



지난 1월 30일(화) 개최된 풍당 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제작발표 및 시사회.

CGN이 기독 OTT '풍당' 론칭 3주년을 기념하며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제작 발표 및 시사회를 지난 1월 30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개최했다.

'바울로부터' 제작 발표 및 시사회는 추상미 감독이 사회를 보고, 한기채 목사 대표기도, CGN 전진국 대표 환영 인사, 정지훈 팀장 제작 스토리 소개, '바울로부터' 시사, 추천사 및 기대평, 토크, 질의응답, 이재훈 위임목사 감사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0부작으로 구성된 풍당 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는 이스라엘, 튀르키예,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까지 바울의 전도 여정을 최종상 선교사와 배우 차인표가 따라 가늠며 그 흔적을 생생하게 조명했다. 2월 15일 기독 OTT '풍당' 오전 12시, CGN 유튜브 채널 오후 6시, TV 오후 7시 30분 공개한다.

전진국 대표(CGN 대표)는 "풍당 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가 한국 교회가 선교 열정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했고, 정지훈 팀장('바울로부터' 총괄 PD)은 "시청자들이 함께 바울의 흔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바울로부터'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서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 수집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발간 편찬위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역사 자료를 수집한다. 1985년 교회 창립부터 1993년까지 주보, 사진, 양육 자료, 행정 기록(예배 인원 보고 등), 간증집 등을 보관하고 있는 성도들은 서빙고온누리교회 행정지원실(김경렬 간사)에 가져다주거나 <온누리신문>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자료를 스캔한 다음 원본 그대로 돌려준다.

문의: 02-6959-0001(온누리신문)

36기 일일 결혼예비학교 참가자 모집

36기 일일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26만 원.

일일 결혼예비학교는 결혼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임향재 목사, 이주호 강사, 김숙경 소장이 강의한다.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총회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을 위한 총회가 지난 1월 27일(토)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는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가 철저한 조사와 중요도의 관점에서 비전과 열매의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는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책자 발간은 우리와 하나님, 하용조 목사, 신앙의 선배들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그대

화를 기록으로 남기면 온 누리를 비추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간위원장 홍성호 장로는 "온누리교회 40년 역사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의미"라면서 "온누리교회의 건강한 성장 기록을 남기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편집위원장 김명현 장로는 "읽기 좋고, 역사성이 있으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한국 교회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 32명, 홀몸 어르신 60가정에 식료품과 편지 선물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 32명이 지난 1월 17일(수)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청파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홀몸 어르신 60가정을 방문해서 3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날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이 직접 식료품을 포장해서 전달하고, 홀몸 어르신들에게 드릴 편지를 작성해서 읽

어드렸다. 김종호 목사(파워웨이브 담당)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더 베풀고,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할 기회를 자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갑록 관장(청파노인복지관)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물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인사했다.

/ 김현준 기자

입양 홍보 마라톤 행사 참가자 모집

제이홈, 4월 27일 마라톤 대회 및 홍보 부스 운영

온누리교회 입양 가족 모임 '제이홈'에서 '제1회 제이홈 입양 홍보 마라톤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입양 및 위탁, 입양 홍보에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마라톤 대회 및 홍보 부스 운영은 4월 27일(토) 안양천에서 한다. 제이홈 입양 홍보 마라톤 행사에는 마라톤대회 참가나 홍보부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

하는 성도들은 '이름, 공동체, 연락처, 참가 희망 파트(마라톤 또는 홍보부스)'를 문자메시지(010-2002-1007)로 보내면 된다.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은 '생년월일, 티셔츠 사이즈(85~110)'를 함께 보내야 한다.

마라톤대회 참가비는 1만 5천 원이다. 대회 기념품, 반호표, 안내책자, 완주 메달, 기록증 등을 지급한다. 문의: 010-2002-1007

NGO 더멋진세상, 도미니카공화국에 병원 신축

NGO 더멋진세상이 도미니카공화국 두케사 지역에 병원을 신축한다. 지난 1월 27일(토) 착공식이 있었다. 도미니카공화국 두케사 지역은 수도권 근처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이자 아이티 난민촌이 형성된 지역이다. NGO 더멋진세상에서는

주민들과 난민들이 먼 지역 병원으로 가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신축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치과, 응급실, 약국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해 6월 완공할 계획이다. 수혜자는 1천 명으로 예상된다.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 모집

2월 말부터 10월까지 총 6개반 개강

예수제자학교(JDS)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예수제자학교에서는 총 6개 반(서빙고 주간반, 저녁반, 양재 주간반, 저녁반, 부천 주간반, 수원 저녁반)을 개강한다. 서빙고와 부천 주간반 2월 29일(목), 양재 주간반 2월 27일(화), 서빙고와 양재 저녁반 2월 24일(토), 수원 저녁반 3월 2일(토) 개강한다. 예수제자학교 주간반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진행된다. 여성만 참여할 수 있다. 저녁반은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2

시부터 8시까지 한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입학신청서(교역자 확인 필수), 추천서(교역자, 교사, 직장상사, 은사, 지인 등 추천자 직접 작성)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다음 사진 2매와 함께 2월 18일(일)까지 각 캠퍼스 본당 로비에 있는 안내데스크나 목회행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70만 원(전도여행비 별도).

문의는 QR 코드 참고.



청춘클래스 7기 참가자 모집

3월 16일과 23일 오후 1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

청춘클래스 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6일(토)과 23일(토)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3월 21일(목)에는 오후 9시 온라인 레크리에이션을 한다. 청춘클래스 7기에서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크리스천의 연애노하우', 개그맨 오지현, 박상미 부

부 '크리스천의 행복한 이성 교제'를 주제로 강의한다. 온라인 레크리에이션은 개그맨 조래훈이 진행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2월 18일(주일)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cafe.naver.com/youthclass)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60명(남녀 각각 30명)을 모집한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내가 만난 하나님



/ 유진아 성도(수원온누리교회)

나는 무교 가정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27년을 하나님 없이 살았다. 결혼 6년 차, 2021년 둘째를 낳다가 고관절 인대가 찢어지고 뼈들이 충돌해 체내에 염증이 생겼다. 매일 밤 열이 38도로 오르고, 따뜻한 공기라도 살에 닿으면 얼음 칼로 온 관절을 에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때 성경을 붙들게 해주셨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고, 매일 2시간씩 기도했다. 어느 날 홀로 방에서 성령세례를 받고, 첫 회개기도를 하게 해주셨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1년 지나 복직 이후, 삶의 예배가 소홀해지고 코로나19에 걸리면서 다시 주저앉게 됐다. 고열로 이불을 뒤집어쓰고 떨고만 있던 어느 날, 말씀을 보여주셨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이라는 선명하고 새하얀 다섯 글자였다. 그 말씀을 붙들고 밤새 드린 예배와 기도, 예수님의 손길로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 아침에 방문을 열 때 피부에 닿는 공기로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때 방언도 선물 받고, 영의 기도도 알게 해주셨는데, 그날이 출산한 지 2년, 둘째의 두 번째 생일이었다.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60년

‘그가 찔림은’

무교였던 부모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순종을 통해 큰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신다.

어린 자녀를 키우며 매 순간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 2년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뿐 아니라 나의 고통 가운데 누구보다 아프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강력히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은 답은 오직 ‘하나님 사랑’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시다. 놀랍게 가르쳐주신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최고의 위로자이시다.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절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아픈 자, 힘든 자, 하나님을 몰랐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믿는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방법으로 열매 맺음을 보게 하신다.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린다.

■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간증



/ 오선미 성도(수원온누리교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첫 예배에서 찬양하는데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났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출산하고 아이가 어리고 잔병이 많다는 이유로, 코로나19가 심하다는 이유로 점차 예배에서 멀어졌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알게 되었다.

하가훈에서 3주에 걸쳐 많은 강의를 듣고, 남편과 나눴고, 그리고 조 안에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남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했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

하가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뜻하신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제목으로 드렸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가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고, 가정을 통해 행하실

우리 가정을 위한 다섯 가지 다짐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싶다.

결혼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편을 안아주고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다. 유익한 내용의 강의를 통해 아내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내가 무지했던 부분이 너무 많았고, 알고 있었지만 내 이기심에 적응하려 하지 않았던 것도 회개했다. 앞으로 삶에서 잘 적응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다.

곧바로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위해서는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작은 변화를 위해 내가 적용하기로 다짐한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남편과 함께 매일 성경 구절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둘째, ‘우리 가정과 아이를 위해 남편과 함께 매일 기도하기’, 셋째, ‘주일예배 지키기’, 넷째,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다섯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가정과 양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다.

■ 유아세례 간증



/ 아이: 박율찬 부:박용근 모: 정예지

우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외국에서 3년 동안 신혼생활을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아기를 낳을 계획을 세웠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들은 나의 몸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았다. 시험관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험관을 한다 해도 확률이 아주 낮았다.

지인의 소개로 저명한 크리스천 산부인과 교수님을 만났다. 그 교수님은 시술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해주실 것을 믿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축복기도를 해 주셨다. 천사처럼 환한 미소로 “잘될 거야”라며 늘 응원해주셨다.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이 미쁘게 바라봐주신 덕분에 천군만마 같은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다행히 시험관 시술 2번 만에 첫째를 건강하게 품을 수 있었다.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기쁨으로 육아한 지 2년이 흘렀다. 어느 날 상상하지 못했던 둘째가 찾아왔다. 자연임신이 될 수 없는 몸 상태였는데 아기가 찾아왔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경이롭고 측량할 길이 없다!

일이었기에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처럼 경이롭고 측량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부부는 다시 한번 태아 축복 기도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아주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나의 믿음은 항상 제자리걸음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귀하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자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다.

우리 가정은 주일성수를 꼭 지킨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싹트는 아이를 볼 수 있었다. 둘째 아이도 올해부터 영아부에서 예배드릴 예정이다.

더없이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늘 최선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린다. 우리 부부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청지기로서 두 아이를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해피맘 수료 간증



/ 김사랑 성도(가명)

해피맘에서 ‘부부 하나 되기’ 부분을 읽고 요약하는 숙제를 하면서 그동안 남편을 향한 내 감정들을 전부 쏟아냈다. 아이를 낳고부터 쌓였던 서운한 마음과 연애 시절에는 몰랐던 남편의 육하는 성격에 상처받은 마음을 솔직하게 썼다. 토해내고 났더니 시원했고, 마음이 조금은 정리되는 것 같았다.

사실 나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보내셨을까?’라고 원망한 적도 있었다. 해피맘을 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해피맘에서 조원들과 용서에 대해 나눴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는 남편이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남편을 용서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해결되기를 기도했다. 나에게 상처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응답인지, 어머니학교와 해피맘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 남편이 갑자기 새해 결심을 나눴다. ‘하루에 한가지씩 아내와 아이를 위한 일을 실천하기’였다. 사실 나는 콧방귀를 뀌었는데, 남편이 정말 열심히 그 결심을 실천했다. 퇴근길에 아이랑

가정은 작은 천국!

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오기도 하고, 아이가 질문하면 웃으면서 친절하게 알려 주기도 했다. 남편의 육하는 모습도 조금씩 찾아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도 참고 넘기고, 못 참고 화를 내면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해피맘을 하고 나서 내가 달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달라졌다. 남편이 달라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고, 서로 눈치를 보는 일도 줄었다. 언젠가 해피맘 리더님이 “본인이 생각하는 가정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던 게 생각난다. 한 자매가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대답했는데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다. ‘가정이 천국 같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아직 용서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이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장로칼럼

84세 엔지니어의 고백



이창남 장로
(서초B공동체)

오늘도 나는 마치 막일지 모르는 멋진 하루를 공짜 선물로 받았다. 나는 언젠가 호흡이 멎는 순간 더 좋은 어디론가 가게 될 것을 믿는다.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비유해 본다.

누구나 아버지에 게서 나온 올챙이 닮은 미물에서 시작해 수억 대 일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서 사람이 된다. 수영을 열심히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임을 믿기를 바란다. 미물은 어머니가 준 절반을 더해 태아가 된다. 이제 그것은 새 피조물이다. 어머니의 배 속에 둥둥 떠서 무럭무럭 자란다. 집이 점점 비좁아진다. 더 커지면 답답해서 어떡하나 싶어 발길질도 해 본다. 밖에 나가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 아기는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태줄이 끊어지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아팠었는지 기억하는 아기는 없다. 세상에 나오고 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흡이 멎는 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의 삶을 마치고 새로운 세계로 갔을 때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그것 없이는 큰일 날 것처럼 고민했던 모든 문제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찮은 미물이었을 때는 감히 알 수 없었던,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이 세상을 마주했던 것처럼, 84세의 나는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기대의 순간이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노래를 아무리 해도 음정 박자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고, 춤을 아무리 배워도 영 못 추는 사람을 ‘몸치’라고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가져지지 않는 사람은 ‘영치’이다. 시대의 지성이라 평가받은 이어령 선생님도 젊은 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이 가져지지 않는 영치였으나, 어느 날 성령님의 도움으로 갑자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어령 선생님이 말하는 ‘성령님의 도움’이란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었던 반면, 나는 그런 사건을 겪지 않고도 믿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성령님께 더욱 감사하다.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나처럼 너무 큰 시련이 아니라 행복하고 삶이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얻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한다.

나는 50여 년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한 달에 두 번 월요일 아침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다. 올해로 대략 30년째다. 우리 직장예배의 횡수를 계산해 보면 700회 정도 된다. 업무상 회의나 교육 목적으로도 이만한 인원을 이렇게 자주 불러 모으려면 쉽지 않다. 100여 명 직원 중에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이가 몇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회사를 거쳐 간 이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말씀이 한 쪽 귀에서 다른 쪽으로 통과해 나가지 않고 머리로, 가슴으로 타고 들어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혹시 목사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한다.

권사칼럼

지금은 말씀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성경은 마지막 때 주의 자녀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예언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셔서 나이든 내게도 해당되니 가슴이 설렌다. 예언이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나의 시대 종손 조카는 교수로 은퇴하고, 골프를 즐기며 건강하다. 자녀들도 모두 성공해서 아쉬울 게 없는 분이다. 조카는 나보다 7살 연배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숙모님, 나는 과학자입니다”라면서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래도 나는 전화로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꼭 돈을 보내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종부인 질부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어렵사리 조카가 걱정을 털어놓았다. KTX를 타고 내려가 조카댁을 방문했다. 나를 보고 조카가 푸념을 털어놓았다.

“요즘 눈도 침침하고, 청력도 약해지고, 좋아하던 골프도 접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네요. 나이 들면 인생이 허무한가 봐요.”

나는 “그렇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국적, 부모, 성별,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라면서 “사람마다 종교관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고 했더니 흔쾌히 수락했다. 나는 “종손 부부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면서 <최고의 행복> 전도지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종부에게 치매 증상이 있는데도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정상인과 다름없었다.

“사랑하는 종손 부부야, 그동안 종손 노릇하느라 수고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희 부부를 사랑한다. 나이 들면 허무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기대하렴.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나는 종손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흘러가 우리 문중을 영생으로 이끄는 진정한 종손이 되게 해 주세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조카가 “숙모님 기도가 감명 깊습니다”라면서 차비 하라고 10만 원을 내 손에 쥐여줬다. 한사코 거절해도 꼭 주고 싶다고 했다. 가까운 교회로 연결해 주려고 했더니 교회 출석은 어렵다고 했다. 집안 종손으로 제사 문제 등 고민과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 나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로 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고 당부했다.

나는 전도하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 “난 너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셔. 난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갖고 계신다”라고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불호령을 내리지 않으시고, 내게로 돌아와 힘을 얻으라고 하신다. 행복은 내게서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된다. 전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성령님이 일하신다. 지금은 말씀이 성취 되는 마지막 때다.

신앙에세이



여성민 목사
(광명공동체)

나의 마음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하나는 묵회하는 방, 또 하나는 운동하는 방이다. 보통 묵회 방에서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운동하는 방으로 들어간다. 운동하는 방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검도

호구다.

검도를 처음 하게 된 것은 대학생 때였다. 검은 도복과 호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 시작했던 검도가 지금까지 이어졌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미국 유학 때도 일본도장에서 계속하면서 검도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 검도가 좋은 이유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80세까지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요즘도 교회 업무를 마치고 동네 검도장으로 향한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잠깐의 틈이지만 검도장에서 젊은이들과 땀을 흘리면서 교감을 한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도 침묵이 되고, 충전의 시간이 된다.

내가 이토록 검도를 좋아하게 된 것은 세 가지 매력 때문이다. 첫째, 집중도가 높은 운동이라는 점이다.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고, 칼끝을 마주하기에 잠시도 방심할 수 없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둘째, 순간적인 결정타를 요구하는 격렬한 운동이지만 호구를 착용하기에 안전한 스포츠다. 무리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호구가 있기에 위험한 점이 없고, 안전하다.

셋째, 스트레스 해소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 정확한 타점과 자세, 우렁찬 기합이 있어야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로 큰 기합을 내야만 점수를 얻는 운동은 검도가 유일할 것이다. 처음에는 취미로 검도를 시작

했지만, 이 매력들 덕분에 지금은 취미 이상으로 정서와 건강, 목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본검도연맹에서 4단 승단 심사에 합격했다. 참가자 52명 중에서 14명만 합격했는데, 내가 그 합격자 명단에 들었다는 소식에 감격했다. 마치 대학교 졸업장을 받았던 날의 감격처럼 내 인생의 또 다른 기쁨이었다. 검도 4단 합격하고 난 다음에 서빙고온누리교회 근처에 살고 계시는 일본인 주재원들이 떠올랐다. 그분들과 검도를 하게 되면 교회와 선교에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겠다는 기분 좋은 생각도 하게 되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검도 도장에서 몇몇 젊은 사범들을 지도하고 있다. 사범들에게 “고단자 일수록 중단(죽도)을 잘 잡아야 한다”고 알려준다. 또한 “검도의 기본기인 중단을 가운데 놓는 자세를 잘하면 누구와도 대결할 때 절대 맞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중심만 잘 잡으면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

검도의 기본 정신은 배려에 있다. 검도는 남을 때리려는 운동이기보다 함께 연습할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예의를 갖춰야 하는 운동이다. 상대가 초보자일지라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게 바른 자세와 예의를 갖추고, 계속 반복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사범들의 검도 아름답고 바른 검력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

신앙도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되는 중단(믿음)이 든든할수록 공격을 이길 수 있다. 운동의 고수일수록 온몸에 힘을 빼듯이, 신앙생활에서도 자신의 힘을 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부드러움과 유연함, 배려의 마음을 지닐 때 강력한 신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취미로 시작한 스포츠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 검도를 하면서 믿음의 생활과도 연결되어서 더욱 흥미를 갖게 된다. 앞으로 검도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남에서 전도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한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팀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장로합창단 신입 단원 모집
지역: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65세 이하
문의: 박일면 총무(010-3708-5781)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초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 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모집: IT 웹퍼블리셔(PC/모바일/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HTML5와 CSS3로 웹페이지 제작)
형태: 정규직(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접수: 2월 12일까지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ú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어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어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양재 꿈아이놀이터 교사 모집
대상: 24~40개월 영유아
기간: 2월~11월
모임 및 예배: 매주 토 9:00~14:00
장소: 양재 선교관 1층 사이닝홀
모집: 데코, 찬양, 반주, 음향, 소그룹, 사회 활동자료 제작 등
문의: 신주용 전도사(010-3918-8223)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월 1일~1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www.ttu.ac.kr에서 초빙 공고 참조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1부 9:00, 영어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11:30 4층 영어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어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풍당 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바울로부터

바울의 흔적이 전해 온 메시지

이스라엘, 튀르키예, 키프로스,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는 10부작 다큐멘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빛의 자녀들 같이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
이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죠.

최종상 선교사



바울은 하나님한테 일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바울로부터>를 촬영하면서 바울을 닮고 싶었고,
회개의 참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 차인표

2월 15일 대공개

풍당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저녁 7시 30분

풍당 다운로드